

# “공천권을 시민에게… 모든 기득권 내려 놓겠다”

## 국민의당 광주 국회의원 5명 기득권 포기 선언

4·13 총선을 두 달 남겨 놓고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광주 현역의원들이 기득권 포기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광주 국회의원 5명은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권을 광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당의 성공과 정치혁신을 위해 뛰겠다”며 기득권 포기를 선언했다.

의원들은 ▲당에서 정한 룰을 존중해 공구적으로 공천권을 광주 시민에게 돌려주고 ▲당헌·당규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심사·경선결과 승복 ▲개인의 영광보다는 국민의당의 성공을 위한 당과 시민의 명령 이행 등 3가지 약속도 했다.

선언에는 박주선(동구)·김동철(광산갑)·장병완(남구)·임내현(북구을)·권은희(광산을) 의원이 참여했다. 장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역 민심의 높은 기대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의미로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천정배 공동대표는 “취직에는 100% 공감하지만 당 대표로서 지역 의원들 선언에 참여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당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날 선언은 지난 1월19일 국민

## 공천심사·경선 승복 다짐

## 전략공천 수용은 즉답 피해

의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미 밝힌 내용을 다시 선언하는 이른바 ‘재탕 선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역 의원으로서의 어떤 보장이나 공천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에서 결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경선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한 경선 참여’ 주장은 일부 지역구에서 가능성이 제기되는 전략공천에 대한 우회적인 반대 입장 표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전략공천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지기반이 있는 지역에서도 더민주와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과 신인 발굴이 조화롭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공천룰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최고위원은 시민사회에 광주 공천을 맡기고 싶다는 천 공동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속의선거인단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같은 당 예비후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경진·김명진·김하중·서정성·정진욱·최경환 등 예비후보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천 과정에서 공천 룰을 따르고 의원을 이용한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은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라며 “운동선수 가 경기에 참여하면서 룰을 지켜야 한다는 상식을 특별히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현역 의원으로서 진정한 기득권 포기는 백의중군을 포함한 희생과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친노패권주의와 광주 기존 의원들의 무능에 등 돌린 시민의 성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했던 (가칭)국민회의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영집 ‘새로운 길’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당 광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포기선언은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기득권 포기선언이 도대체 어떤 기득권을 포기했는지 모를 정도로 뻔뻔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시민정서에 부합하려면 불충마, 대선 의원들의 수도권 등 험지출마 등 이에 준하는 혁신적 조치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런 정도의 기득권포기라면 광주시민은 국민의당을 신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로민주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은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권을 광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기득권 포기를 선언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컴백홈법… 국민연금으로 청년임대주택 조성

##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 낙하산 금지·공정성장 등 3개 법안 2월 임시국회 발의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

어질 가운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며 법안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인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제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제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

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민주 공관위는 ‘공포의 외인구단’

## 외부 인사 주축…현실과 이상 사이 기대반 우려반

더불어민주당의 공관위(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창선 위원장과 서해석 변호사, 정장선 총선기획단장,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김현태 한림국제대학원 겸임교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계파 영향력에서 벗어난 ‘탈 계파’ 공관위라는 긍정적 평가가 높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현역 국회

의원들이 공관위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각종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결국 피비린내 나는 혁신 공천만이 더민주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관위가 정치적 현실을 잘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 원장이 탈당자와 상관없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홍창선 위원장 역시 현역 국회의원 교체 폭이 커질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어 당내 의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관위가 외부 공관위원들이 정치권 현실이나 당내 매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갈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내 모 중진 의원은 “공천 혁신의 이상과 당선 가능성의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공관위에서 이상과 현실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권 분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싸움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현역 물갈이에만 비중을 두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공천 신청 시작…최경환 1호 접수

새누리당이 4·13 총선 후보자 공천 절차 11일 본격 시작됐다.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천 신청서 접수를 개시했다. 공천 신청 1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3선 중진 현역 의원이자 ‘진박(진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당의 강세지역 등에서 현역 의원의 물갈이 비율과 기준이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대폭 교체한다는 방침과 함께 의정 활동의 ‘성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현역이 프리미엄을 얻는 식

의 공천은 하지 않고, 공천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맞게 과감하게 가려낼 것”이라며 “당헌·당규에도 부적격자는 가려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영남, 서울 강남과 같은 새누리당 강세지역의 심사 기준에 대해 “당 지지율에도 훨씬 못 미치면 현역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박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일부 진박계가 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을 위한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밝은광주안과 의원

#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